

教材「えんぴつ作文」

この教材は、大阪市内にある被差別部落の識字学級、日之出よみかき教室（木曜日）で活用しはじめたものです。

<教室の紹介>

日之出よみかき教室は、1970年に生まれました。被差別部落に暮らす女性たちの「せめて子どもに絵本を読んで聞かせてやりたい」「役所に届ける書類を自分で書きたい」「住所や名前ぐらい自分で書きたい」「子どもが学校から持って帰ってくるプリントを読んでやりたい」といった切実な願いからはじまった教室です。



現在この教室には、被差別部落である日之出地区以外に暮らす人たちも参加しています。障害のある人、不登校経験のある人、仕事や結婚で渡日した人、家族を頼って朝鮮半島や中国から来た人、仕事やワーキングホリデーでフィリピンや朝鮮半島から来た人などです。年齢層も20～70代と幅広い人が集っています。学習パートナー（支援者）は、経験も年齢も幅広くバラバラです。そんな参加者が週1回、夜7時から9時まで、2時間集まって学習をしています。

<2時間の教室活動のながれ>

学習者それぞれの課題に応じた学習を1時間ぐらいすすめます。たとえば、生活に必要な漢字の学習、日々のことを綴り記録する学習、地図の見方や日本語でのおしゃべりなどです。その後、教室で作ったご飯と味噌汁をみんなで食べながら日々のことをおしゃべりします。ときには、運営会議を開き、教室のすすめ方や地域イベントへの参加について、教室みんなで話し合います。活動時間残り20分ぐらいで、「えんぴつ作文」を書き、発表（輪読）してその日の識字活動を終えます。

<えんぴつ作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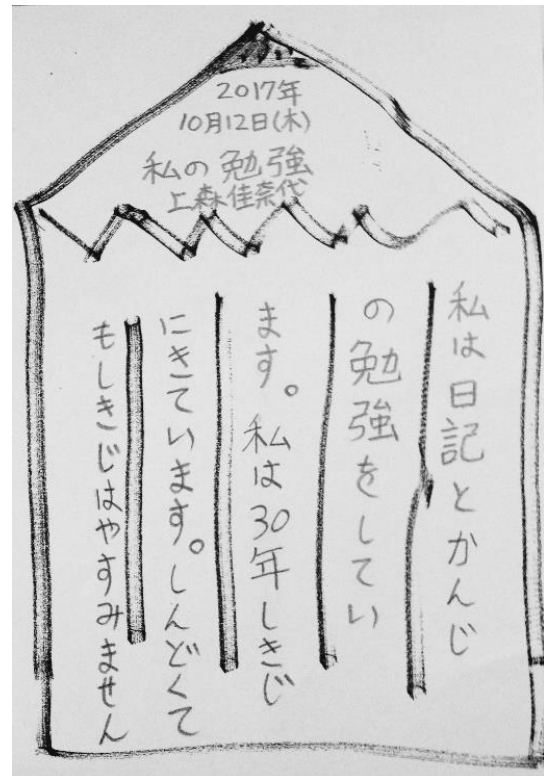
テーマに沿って、それぞれの思いや考えを書き綴り、最後にみんなで輪になって発表（輪読）する取り組みです。B6サイズの紙にえんぴつを書きます。そのえんぴつの絵に、5行程度の作文が書けるように線を引きます。それを一人ひとりに配りテーマに沿って作文を書きます。時間は、だいたい20分程度の取り組みです。

書くスペースをえんぴつ型にしているのは、識字学級でえんぴつをいつも使っているからというだけではありません。大阪府内の識字学級や夜間中学では、年に1度「よみかきこうりゅうかい」（2018年現在で29回開催）という500人規模の集会を開催しています。そこに集う際、学習者・学習パートナーは、それぞれの思いを「えんぴつポスター」と呼ばれるA4サイズぐらいの紙に書き綴り展示します。「えんぴつポスター」は「えんぴつ作文」より大きいサイズになります。「えんぴつ作文」は、その縮小版です。

テーマは毎週いろいろです。その日に教室で学習者が呟いた言葉から選んだり、生活や生い立ちを振り返るきっかけになるものにしたたり、季節に合わせてたりと、その日その日で変わります。教室に初めて来た人には、自己紹介を書いてもらったりしています。日本語で書くことが難しい人には母語で書いてもらい、他の学習者に訳してもらいます。

（テーマ例）

- *冬の寒い時は「寒なったなあ」 *暑い夏の日には「夏に食べたいもの」
 - *年末年始の休み明けは「久しぶりの教室」
 - *教室に初めて来た人が多い時は「自己紹介」
 - *学習者が呟いた言葉をもとにした時は「思い出の食べ物」、「まつり
の思い出」、「逃げる」、「痛いこと」などです。
- ※時々、「折句」も交えます。



菅原智恵美（大阪市立大学大学院・日之出よみかき教室）

교재 “연필 작문”

이 교재는 오사카시내에 있는 피차별부락의 문해학급 히노데 읽기쓰기교실 (목요일)에서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실의 소개>

히노데 읽기쓰기교실은 1970 년에 창립되었습니다. 피차별부락에 생활하는 여성들의 ‘적어도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고 싶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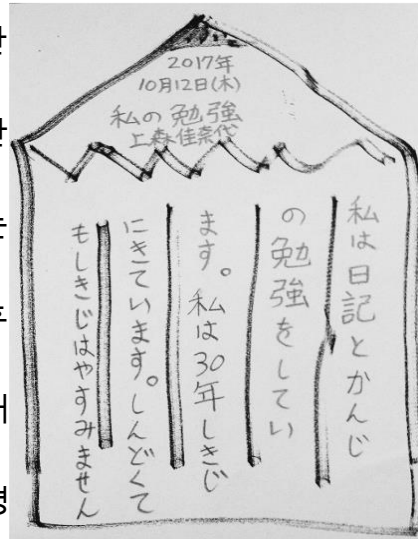


직접 쓰고 싶다’ ‘주소나 이름 정도는 스스로 쓰고 싶다’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프린트를 읽고 주고 싶다’ 라는 간절한 소원에서 시작된 교실입니다.

현재 이 교실에는 피차별부락인 히노데 지구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등교거부 경험이 있는 사람, 일이나 결혼 때문에 일본에 온 사람, 가족을 의지해서 한반도와 중국에서 온 사람, 일이나 워킹홀리데이로 필리핀이나 한반도에서 온 사람 등입니다. 연령층도 20 -70 대와 폭 넓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학습 파트너(지원자)는 경험도 나이도 폭넓고 다양하다. 그런 참가자가 주 1 회, 밤 7-9 시까지 2 시간씩 모여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2 시간의 교실 활동 흐름>

각각 학습자의 과제에 맞는 학습을 1 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에 필요한 한자 학습, 일상을 기록하는 학습, 지도를 보는 방법이나 일본어 회화 등입니다. 그 후 교실에서 만든 밥과 된장국을 함께 먹으면서 나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운영



회의를 열고 교실의 진행 방법이나 지역 행사 참여에 대해 교실 모두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활동 시간 남은 20 분 정도를 활용해서 ‘연필 작문’ 은 쓰고 발표(윤독)하여 그날의 문해 활동을 마칩니다.

<연필 작문>

테마에 따라 각각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글로 적어놓고, 마지막에 모두 둘러 앉아 발표(윤독)하는 활동입니다. B6 사이즈의 종이에 연필 모양을 그립니다. 그 그린 연필 모양 그림에다가 5 줄 정도의 작문을 쓸 수 있도록 선을 긋습니다. 그것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제별로 작문을 씁니다. 시간은 대략 20 분 정도의 활동입니다.

쓰는 공간을 연필 모양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문해교실에서 항상 연필을

사용하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만은 아닙니다. 오사카부내의 문해학급이나 야간중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 ‘읽기쓰기 교류회’ (2018년 현재 29회 개최)는 500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일 때 학습자·학습 파트너는 각각의 생각을 ‘연필 포스터’ 라로 부른 A4 사이즈 정도의 종이에 글을 적어서 전시합니다. ‘연필 포스터’는 ‘연필 작문’ 보다 큰 크기입니다. ‘연필 작문’은 그 축소판입니다.

테마는 매주 다양합니다. 그날 교실에서 학습자가 중얼 거렸던 말에서 선택하거나 생활과 성장 과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테마, 계절에 맞는 테마로 하는 등, 그날그날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실에 처음에 온 사람에게는 자기소개를 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쓰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모국어로 써달라고 하고 다른 학습자에게 번역을 부탁드립니다.

(테마 예시)

- * 겨울의 추울 때는 ‘추워졌구나’
 - * 더운 여름날은 ‘여름에 먹고 싶은 것’
 - * 연말연시의 휴일 끝난 후에는 ‘오랜만의 교실’
 - * 교실에 처음에 온 사람이 많을 때는 ‘자기소개’
 - * 학습자가 중얼 거렸다 말을 바탕으로 한 때는 ‘추억의 음식’, ‘축제의 추억’, ‘도망치다(피하다)’, ‘아픈 일’ 등입니다.
- ※ 때때로 ‘오라쿠(折句)’도 포함합니다.

스가와라 치에미(오사카시립대학 대학원·히노데 읽기쓰기교실)

翻訳 : 肥後耕生(豊岡短期大学)

번역 : 히고 코우세이(도요오카단기대학)